



리얼리즘 떠나간 자리에 환상소설 밀물

컴퓨터 통신세대 등장으로 환상소설 '개화' 예감

아직 개념조차 낯선 '환상소설'이 출판시장의 '정권공략'에 나서고 있다. 순수문학부터 대중문학 장르까지 아우르고 있는 환상소설은 90년대 리얼리즘의 급격한 퇴조, 새로운 감수성으로 무장한 통신세대의 등장이라는 사회현실과 맞물리면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환상소설의 고전 번역 활발

먼저 문예지들이 환상소설 개화의 신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상상》(96년 가을호), 《오늘의 문예비평》(96년 겨울호), 《세계의 문학》(97년 여름호), 《외국문학》(97년 가을호) 등은 앞다퉈 '환상문학 특집'을 마련해 환상문학의 가능성과 사회적 배경을 짚어내고 있다.

문학평론가 황국명은 <90년대 소설의 환상성, 그 상상력의 모험>(《외국문학》 97년 가을호)에서 "90년대 이후 소설이 내성화의 길을 걷고, 자서전의 탈을 쓴 신변잡지로 흐르거나 지난 시절에 대한 무기력한 후일담으로 전락하는 가운데, 환상성이 경직된 리얼리즘 소설의 무능한 관습성을 돌파하고, 소설을 위기에서 구해낼 새로운 대안이 아니겠느냐"며 환상소설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삶의 불가해성을 극단으로 밀어부친 송경아의 《책》(민음사), 시원적 상상력에 뿌리를 둔 윤대녕의 《남쪽 계단을 보라》(세계사), 연금술적 상상력을 새롭게 펼쳐보인 송대방의 《헤르메스의 기둥》(문학동네) 등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거론한다.

문학에서 환상의 경계와 범주설정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외국 환상소설의 고전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현대문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라틴아메리카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칼비노의 작품들이 잇달아 출간되었다.

민음사는 '20세기의 창조자'로 불리는 보르헤스의 《불한당들의 세계사》부터 《세익스피어의 기억》까지 <보르헤스 전집> 5권과 《반조가리 자작》·《나무 위의 남자》·《존재하

지 않는 기사》 등 3권의 <칼비노 선집>을 내놓았다.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고려원미디어)과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울산대출판부)도 라틴아메리카의 미술적 환상문학을 선보였다.

황금가지의 <환상소설 전집>과 시공사의 <그리폰북스>는 환상소설의 '정품화'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실이 문학을 압도해온 우리나라에 환상문학이 가질 수 있는 수혈의 가능성을 주목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힌 <환상소설 전집>은 서구 환상문학의 아버지 E.T.A. 호프만의 《악마의 묘약》과 메리 도리아 러셀의 《영혼의 빛》을 펴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아서 고든 펴의 모험》, J.R.R. 톨킨의 《반지의 군주》 등 20권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과학적 논리와 환상의 세계를 형상화한 걸작 과학소설을 엄선한 <그리폰북스>는 로저 젤라즈니의 《내 이름은 콘라드》, 시어도어 스타튼의 《인간을 넘어서》 등 10권을 내놓았다. 특히 아이작 아시모프, 아서 C. 클라크와 함께 영어권 과학소설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로버트 A. 하인라인(《스타쉽 트루퍼스》), SF작가이면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어슐러 K. 르 쿨(《어둠의 왼손》) 등 상업성과 문학성의 '보장수표'로 통하는 휴고상과 네블라상 수상작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잠재수요 높은 환상소설

대중문학 장르로서 국내 환상소설은 컴퓨터통신에서 활약한 아마추어 작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환상소설의 상업적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책은 이우혁의 《퇴마록》(들녘). 이우혁은 최근 인간계와 영계를 넘나드

는 환상적 기법으로 임진왜란의 미스터리를 풀어간 《왜란종결자》(들녘)를 펴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머드게임시장에 진출하고 영화 《퇴마록》도 곧 개봉할 예정이어서 종합 엔터테이너로서 활약하고 있다.

무당미디어에서 나온 김근우의 《바람의 마도사》는 인간과 정령, 마법과 전설이 어루러진 상상세계를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모험과 사랑을 그렸다. 12권 중 6권까지 출간된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황금가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컴퓨터통신망에 연재돼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작품. 17세의 소년 후치가 드래곤 라자를 찾아 떠나는 모험세계를 그린 이 책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출판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환상소설은 컴퓨터게임, 일본 대중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온 신세대들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 황금가지의 장은수 편집장은 "미래전망이 불투명하고 억압적 교육현실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문화향수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청소년들에게 환상소설은 건강한 탈출구로서 매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일본의 환상소설도 국내 매니아층의 공력에 나서고 있다. 들녘에서는 일본의 대표적 환상소설 작가인 미즈노 료의 《마계마인전》(원제 '로도스 전기'), 《로도스 전설》, 《하이

엘프의 숲》, 《암흑의 기사》, 《크리스타나나》 등을 펴냈다. 일본 환상소설의 대부로 불리는 다나카 요시키의 《창룡전》(서울문화사), 《은하영웅전설》·《아루스란 전기》(을지서적)도 나와 있다. 그밖에 대원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매달 일본의 최신 환상소설을 번역한 <판타지 노벨>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바셋 영웅전 엘바즈》, 《슬레이어즈》, 《바람의 대륙》 등을 문고판으로 선보여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변산업 연계로 잠재력 커

환상소설은 영화·만화·애니메이션·컴퓨터게임 등 주변산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출판계의 지형도를 바꾸어놓을 정도로 잠재력을 지닌 분야다. 들녘의 박성규 편집국장은 "5년 정도 지나면 어릴 때부터 컴퓨터게임, 만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상장르에 젖어든 청소년들이 구매력을 갖게 된다. 그때가 되면 환상소설이 출판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환상소설은 아직까지도 비주류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환상성은 리얼리즘과 함께 문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인간의 근원적 욕망과 인간성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담고 있는 환상소설이 90년대 후반의 출판시장에서 얼마만한 가능성을 지닐지 지켜볼 일이다.

— 박천홍 기자

순수문학부터 대중문학 장르까지 아우르고 있는 환상소설은 90년대 리얼리즘의 급격한 퇴조, 통신세대의 등장과 맞물려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90년대 중후반 관심이 늘기 시작한 환상소설 출간은 영화·만화 등으로 연결, 출판계 지형을 바꿀 만큼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